

## 트렌드를 읽으면 수익률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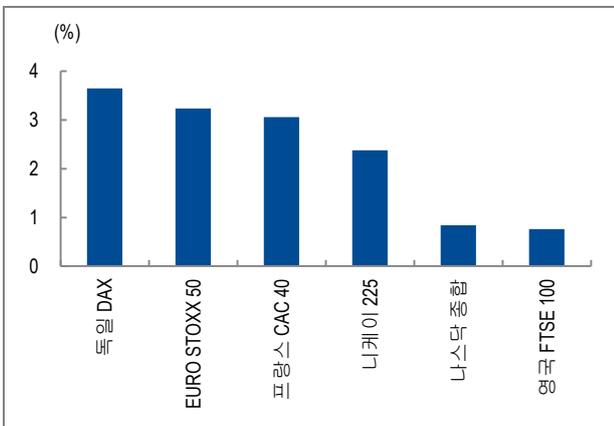
### 글로벌 증시 안정 되찾아

#### 선진국/신흥국 증시 동반 강세

5월 이후 조정세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확산으로 조정 폭이 컸던 유로존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데다,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ECB 집행위원회 이사들의 한시적인 양적완화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가능성 발언이 투자심리를 자극하였고, 4월 미 FOMC회의 의사록에서 경기지표가 6월 금리인상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감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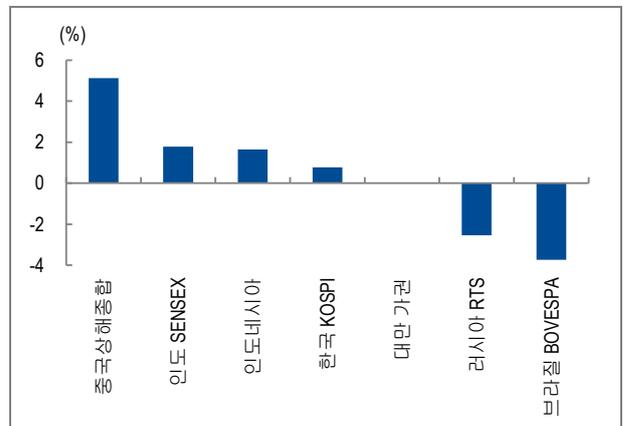
이와 함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증시 역시 동반상승세를 기록하였다. 다만, 러시아 및 브라질 증시의 경우 타 신흥국과 달리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5월 이후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재정취약국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감이 재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지난주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서 단기 지지력을 확보한 국내 증시는 최근의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ECB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진국 증시 상승



기간: 5월 15일~22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신흥국 증시 반등에 성공



기간: 5월 15일~22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 트렌드 변화로 성장 기회를 확보한 중/소형주

#### KOSPI와 KOSDAQ 간의 수익률 갭 확대

다만, 국내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업종 및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가 연초 대비 강화되고 있다. 5월 들어 KOSPI가 조정국면에 들어선 반면, KOSDAQ 지수는 오히려 지난 4월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KOSPI와 KOSDAQ 간의 수익률 갭이 연초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들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OSPI 내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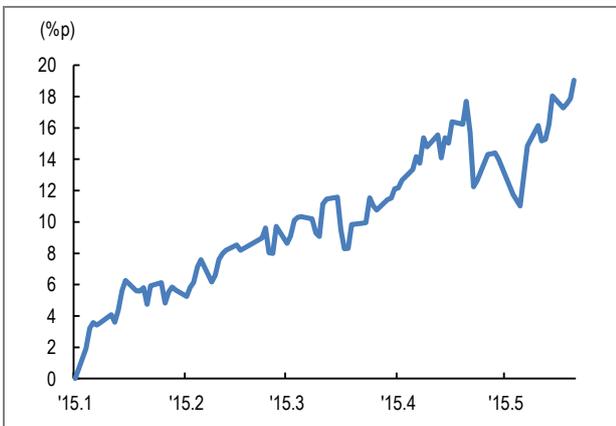
중형주와 소형주의 강세흐름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소형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

최근의 중소형주 강세 속에 KOSDAQ 지수가 연중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의 기간산업 중심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바이오, 미디어, 음식료 업종 등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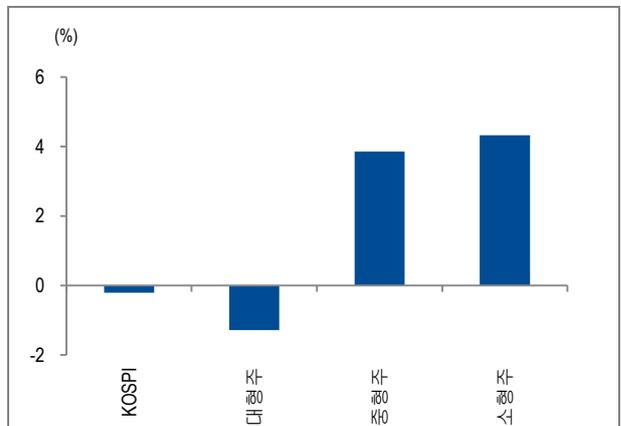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조정과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업종군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중국 소비시장 확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어 중장기적인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OSPI 와 KOSDAQ, 수익률 갭 확대**



주: 연초 이후 KOSDAQ 수익률 - KOSPI 수익률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KOSPI 에서도 중/소형주 강세**



기간: 5월 1일~22일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실적모멘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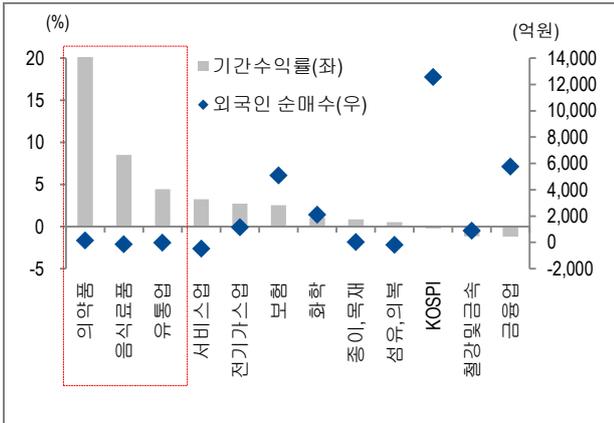
**대형주, 이익모멘텀 강화 업종 중심으로 접근**

한편,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대비 수익률이 저조했던 대형주 내에서도 1/4분기 실적시즌 이후 실적 가시성이 뚜렷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민감업종 내에서는 화학, 에너지의 이익모멘텀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 업종 내에서는 증권, 은행, 그리고 내수소비주 내에서는 생활용품, 유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시마다 꾸준히 매수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에너지/화학, 증권/은행, 내수소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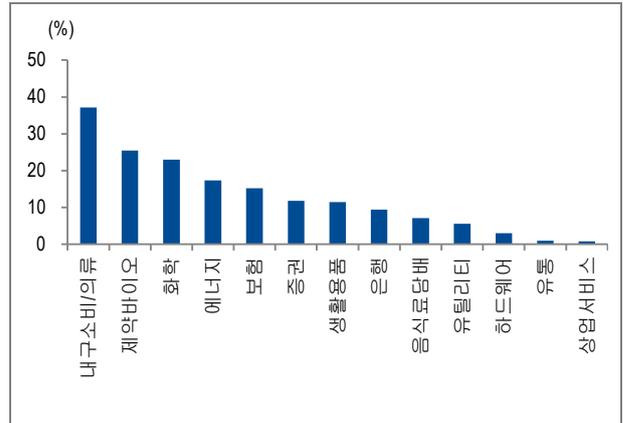
에너지 및 화학 업종의 경우 4월 고점 대비 주가 조정 폭이 컸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상향조정되고 있어 우선 관심 대상이다. 또한 증권 및 은행 업종은 최근 주가 조정으로 가격 또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는 구간에 진입해 있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꾸준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수소비주 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출주의 약세 속에 상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부의 효과에 따른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업종별 수익률 및 외국인 순매수 업종



기간: 5월 1일~22일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업종별 이익모멘텀



주: 1개월전대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